

중·고등학생들의 창업 경쟁, 기업이 정신 키웠다

광주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광주예선

창의적 아이디어 발표...10월 전국대회 출전팀 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3일 광주대학교 행정관에서 ‘2026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광주지역 예선을 열고 전국 결선에 출전할 중·고등학생 4개 팀을 선발했다.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대회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기업이 정신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예선에는 지난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4개 팀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1개 팀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참가 학생들은 팀별로 3분 동안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3분간 심사위원 질의에

답하며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시장성, 사회적 가치 등을 설명했다.

심사는 창업 분야 전문가 5명이 맡아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사회·경제적 가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의 도전정신 △팀원 간 협력과 자원 활용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심사 결과 중·고등학생 4개 팀이 전국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전남지역 예선은 오는 2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다.

총 27개 참가팀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진행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은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고도화하는 심층 멘토링을 거친 뒤



3일 광주대학교 행정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광주 예선전에서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특별시교육청

오는 10월 2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결선에 참가한다.

형지영 진로진학과장은 “학생들이 생활 속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팀원들과 협력하며 창업가정신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전국 결선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보성,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안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대응 방안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올해부터 폭염 특보 체계가 폭염주의보, 경보, 폭염중대 경보를 포함한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군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단계별 안부확인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매일 2회 안부를 확인하고, 읍면복지인적안정망 및 희망드림협의체위원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구호물품 전달 및 폭염 행동요령등을 안내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7개소 대상으로 냉방 설비정상 작동 여부, 시설 안전·위생관리 상태, 폭염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 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보 발령 시 단계별 비상 대응체계, 운영질환 예방수칙 안내·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으며, 노후화되거나 고장 난 냉방기기는 신속하게 수리·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와 참여자에게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각 시설에는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 교육·홍보도 병행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nth68@gwangnam.co.kr



송원대는 지난 7월 27~31일 용산철도고 2·3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학점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AP)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송원대, 용산철도고 AP 교육과정 3년 연속 운영

철도 실무·현장체험 강화...고교-대학 연계교육 확대

송원대학교가 용산철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점 선이수제(AP) 교육과정을 3년 연속 운영하며 철도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송원대는 지난 7월 27~31일 용산철도고 2·3학년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학점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AP)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체결한 ‘철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송원대와 용산철도고, 최근 철도학과를 신설한 송원미래인재고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여해 철도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전공 교육과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학점 선이수제는 고등학생이 대학 입학 전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향후 대학 진학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진로 탐색과 전공역량 강화는 물론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은 송원대 철도안전·관계시스템학과가 주관했다. 학생들은 대학이 보유한 철도 전문 교육훈련시설과 실습장비를 활용해 철도차량 운전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또 광주교통공사와 연계한 일일 관제사 체험, 기

관사 체험, 차량 정비 체험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철도 운영 전반을 경험했다. 특히 전국 철도 관련 대학 가운데 송원대만 보유한 8200호대 전기기관차(FTS)와 제2종 전기차량(FTS) 운전실습을 통해 실제 기관사 교육 수준의 실습도 진행했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은 “학점 선이수제는 철도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라며 “촉진된 교육역량과 실습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교 연계교육을 지속 확대해 미래 철도산업을 이끌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철도고 관계자는 “2024년부터 운영된 AP 교육과정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올해는 실습과 현장체험이 더욱 강화돼 학생들이 철도 분야 직무를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송원대는 국토교통부 인가 철도차량안전교육훈련기관과 철도관계사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27학년도에는 모빌리티 자율전공학과를 신설해 철도와 AI, 미래 모빌리티를 융합한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소 상담. 광주

영어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속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 국지매예광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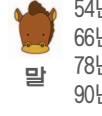
운세 (음력 6월 22일)



48년생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게 잘
60년생 공을 들여왔다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72년생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84년생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96년생 절교만이 최상의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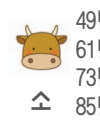
51년생 주위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
6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기가 끼지 않느니라
75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불 일
87년생 행운이 코앞에 당도해 문을 열고 맞이
99년생 뜻이 굳어 이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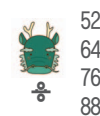
54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심상
66년생 남의 권유나 동업제의 거절하라
78년생 지인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90년생 어려웠던 속제가 풀린다



57년생 식구가 불어날 좋은 운세
69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81년생 찾는 것은 가까운데 있으니 찾아 보라
93년생 친구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하루



49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61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른다
73년생 실리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85년생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97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52년생 친절을 배풀면 갑절의 이익 얻게된다
64년생 특별한 즐거움이 생길 것
76년생 해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따른다
88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



55년생 고집은 고집으로 망하는 법이라
67년생 다양한 수단을 활용 해보라
79년생 구설수가 아니면 도난 당할 우려
91년생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데서 찾아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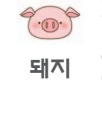
50년생 관재수나 외과적 수술 할수 있는 운세
62년생 천 번이던 만 번이던 참자
74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
86년생 이등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98년생 행동이 옳다면 자신을 갖고 행동



53년생 물에 충격 받기 쉬운 날 차를 조심하라
65년생 일을 도모하려고 마음 태우지 마라
77년생 협력자와 화합이 잘 이뤄질 것
89년생 순발력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56년생 현재로서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라
68년생 사람들과 불화의 징조가 보이니 조심
80년생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92년생 이익보다는 친구를 먼저 생각하라



59년생 일치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당황
71년생 돈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겠다
83년생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
95년생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